

우수 농산물과 가공 제품이 한자리에

농진청, 11월 20일 개막 '강소농대전' 준비 돌입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11월 20~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강소농대전'의 성공개회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 19일 각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 사업 관계관을 대상으로 올해 강소농대전의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열고 행사 운영과 관련한 세부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 혁신도시 소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올해 강소농대전이 주력하고 있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상품기획(MD)과 전시(VMD) 전문가를 초청해 소비자 참여형 행사·전시회의 최신 경향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상품 홍보와 고객 맞춤형 상품진열 방법 등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강소농대전'은 전국의 강소농이 한 자리에 모여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농촌진흥청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강소농대전은 '강소농,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강한 힘(가칭)'을 주제로 ▲강소농 상품 종합전시관 ▲강소농 우수사례 전시관 ▲상품판매·

홍보관 ▲상품구매자(바이어) 상담관 등을 운영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참여형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미래인재단 김경화 단장은 "올해 강소농대전은 정부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강소농과 도시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며 농업을 주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동검제농협, '무배당 리치팜 생활안심보험' 전국 1위 기록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김희상)은 최진호 동검제농협 조합장이 지난 4일 출시한 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리치팜생활안심보험'을 동검제농협 1호로 가입했고, 조합장은 물론 형남남 상임이사 등 경영진의 집중적인 관심과 직원들의 상품 추진 분위기로 전국 1118개 농·축협 중에서 단연 1위의 가입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배당 리치팜생활안심보험은 특정 독성물질(농약포함) 응급실 내원비 보장 및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80%이상) 생활자금과 같은 농업인 특화담보를 탑재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동검제농협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출시 후 4일 동안 103명의 농업인들이 가입했고 입소문을 통해 점차 타 지역까지 가입이 확대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의 '무배당 리치팜 생활안심보험' 상품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기본계약으로 하며, 만기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16개의 비갱신형 특약과 무엇보다 농업인을 위한 4개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갱신형 특약은 농작업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작업중배상책임과 같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받고 농기계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로 발생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80%이상)에 대해 생활자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희상 총국장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항사고 가능성이 큰 농기계사고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농업인들을 위한 보험이다"며 "농가 실의 증진과 위험 대비를 위해 농업인의 가입이 필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러시아·터키 시장개척 지원 '박차'

전북경진원, 현지 수출상담회 운영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산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기업의 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와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 '맞춤형 현지 수출상담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본 상담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10개사와 함께 러시아와 터키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현지 바이어와 직접 만나 우리의 상품을 소개하는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펼쳐 총 124건(983만 USD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군산소재 '벽진'은 이스탄불 메트로와 100만 USD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마스크 필터 제조기업 '인대베렘'은 "수출 경험이 없어 바이어 발굴은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되었지만, 출장

전 경진원 상주 관세사가 방문해 한·터키 FTA를 활용한 관세절감에 대한 부분을 안내받아 가격에 민감한 현지 바이어와 협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다른 업체들과 바이어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향후 있을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경진원은 '통상거점센터'의 확대운영을 위한 시장조사 활동도 진행했다. 경진원은 이미 '베트남 통상거점센터'를 통해 지사화 사업과 샘플전시 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진원 관계자는 "터키는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성향과 함께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기계 부품 및 중간재, 의류기기, 생활용품의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터키시장 개척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더불어, 러시아는 정부에서 추진 중



인 신북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서 현재 FTA 협상 중에 있고, 양국 간 교역액도 가파르게 증가(2017년 대비 2018년도 교역액 31%△) 하고 있어 이번 상담회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우리원은 시장조사(마이오피스)부터 바이어 발굴(현지/초청 수출상담회, 개별박람회 지원), FTA활용지원, 무역실무(컨설팅, 교육), 토털 마케팅 지원(전북형 수출비우치)까지 도내 수출기업에 대해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33개국 60개소의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거점센터를 확대해 전 세계에 전북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민 생활문제 공금증 해결 위해 생명연이 나섰다

BIO특목 개최... 사이언스 버싱킹·연구자 릴레이 과학강연 등 다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은 22일 국민들의 공금증을 해결해 주고, 바이오 과학기술 대중화와 대국민 소통을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BIO특목'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BIO특목!'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플라즈마, 감염병, 노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바이오 이슈를 주제로, 생명연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강연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BIO특목!' 프

그램은 전라북도, 제천시, 대전시에서 개최되며, 이날 전라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첫 프로그램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전라북도 과학축전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사이언스 버싱킹(과학 공연)과 생명연 연구자 릴레이 과학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바이오 토 콘서트에서는 ▲병도 주고 약도 주고(감염병연구센터 김두진 선임연구원) ▲젊음, 되돌릴 수 있는가?(노화연구전문연구단 이광표 선임연구

원) ▲소리없는 살인마, 미세먼지(감염병연구센터 권오석 선임연구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바이오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콘서트가 진행됐다.

생명연 김장성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국민들이 평소 궁금하거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이오 이슈들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국민 강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며, "향후에도 생명연은 바이오 과학기술 대중화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아동수당 우대적금'이 지난 20일 출시했다.

우리아이 장래희망을 통장에!

전북농협, '아동수당 우대적금' 출시·이벤트 셋째 이상 아동에게는 최고 연 5.2% 금리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아동수당 수령 고객을 우대하는 'NH아동수당 우대적금'을 지난 2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아동수당 우대적금의 가입대상은 만 7세 미만의 개인(1인 1계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1/2/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아동의 장래희망을 통장에 인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3.5%(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 시 연 1.5%p,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연 0.5%p, 현재저축이 함께 가입 시 연 0.5%p) 셋째 이상 아동에게 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5.2%(9월 20일, 3년 가입 기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상품 출시와 더불어 11월 25일까지 총 3,300명을 추첨해 호텔숙박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아

동수당 GO GO 이벤트'도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첫째, 농협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고객이 NH아동수당 우대적금을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숙박권(3명),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4매(10명), 아이스크림케이크(100명), 상품권 5천원권(887명)을 매일 1,000명씩 3개월간 총 3,0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둘째, 농협은행 공식 SNS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등재된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 6차에 걸쳐 총 300명을 추첨해 빙수, 아이스크림, 커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상품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내전북본부,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응급상황 대응 교육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지난 19일 전북권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소장과 공사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응급상황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공공임대주택 내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에 의한 공동생활 위협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응급상황 사례 공유, 사고 발생 시 효율적 행동요령 등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또한, 지속적인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고, 향후 각 단지별 관리사무소에 상시 비치하여 적절한 대응체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정수 LH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담당자들이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입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 더 나아가 안전한 공동생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